

놓으면 2개월, 겨울철에는 8개월 후까지도 미량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수간주사를 한 산림임지에서는 2년동안 솔잎채취를 금지하고 있다.

-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솔잎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림법(제118조)에

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“솔잎채취 지침”에 따라 솔잎을 채취하여 솔잎이용과 산림보전 및 국민보건 간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버섯 알고 먹읍시다. —『독버섯』에 유의하자 —

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유용한 버섯은 중요한 장수식품이지만 독버섯을 잘 못 알고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으로 독버섯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.

1. 독버섯류의 유형 및 증상

- 한국산 야생버섯류는 지금까지 기록된 종수가 1천1백여종으로, 그 중에서 항암·항중양의 작용성, 성인병 예방, 노화 방지, 산성체질의 중화 등에 탁월한 효과의 약용버섯류(상황버섯, 영지, 구름버섯, 동충하초)와 고단백질, 비타민, 칼슘, 인, 철분 등의 무기질 및 향미가 풍부하게 식용할 수 있는 식용버섯류(자연산 송이, 표고, 느타리, 양송이, 팽나무버섯, 너도팽나무버섯, 뽕나무버섯,

잎새버섯)가 100여종, 독버섯종류가 50여종이 있다.

- 독버섯류에서 인체의 위해(危害) 한 맹독성이 있는 독버섯류는 20여종에 불과하지만 청산가리의 약 40배가 되는 맹독성을 지닌 독버섯도 있다. 이러한 독버섯류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산행을 하다가 버섯을 잘 못 먹고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. 더구나 식용버섯류가 다양 발생하는 추석 전후에 독버섯 중독 사고의 실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.
- 그 이유는 식용버섯류를 채취할 때 독버섯류의 간략한 민간적인 식별방법이 아직 없으며,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류가 많기 때문이다.

-
- 특히 치명적인 맹독성을 포함한 버섯류는 광대버섯속(독우산광대버섯, 알광대버섯, 절구버섯아재비 등)이 가장 많고 화경버섯속(발광균인 화경버섯), 개암버섯속(노란다발), 깔대기버섯속(화상균인 독깔때기버섯), 마귀곰보버섯속(마귀곰보버섯)등으로 그 독버섯류가 함유하고 있는 독성분<amatoxins, gyromitrin, monoethylhydrazine, muscarine, phallotoxin 등>에 따라 복합적인 증상들 <안면에서 목부까지 흉조, 현기증, 호흡곤란, 혈압강화, 발한, 구토, 위경련, 심한복통, 설사, 시신경 장애, 환각, 정신착란, 눈물흘림, 침흘림 등>이 발현될 수 있다.
 - 만약, 잘 못 알고 독버섯을 먹었을 경우에는 남은 버섯을 버섯분류학자의 도움을 받아 식별하고 우선 가능하다면 응급조치로 소금을 먹여 즉시 토해낸 후(위 세척),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조치를 받아야만 한다.
- ## 2. 독버섯의 간이 식별법
- 먼저 일반적인 경험상 식별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알려진 버섯류이 외에는 먹지 않는 것이 상책으로 과신하면 안된다.
 - 것의 모양이 부정형이며 인편이나 사마귀점이 있는 버섯.....광대버섯류, 독청버섯류
 - 버섯의 대(줄기)에 상단에 턱받이가 있거나 밑부분에 대주머니가 있는 버섯.....광대버섯류
 - 백색대(줄기)에 갈색의 물결모양이 있는 버섯.....광대버섯류
 - 버섯을 찢어 보아서 세로로 잘 부서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버섯.....무당버섯류
 - 색상이 화려하거나 쉽게 변하는 버섯.....무당버섯류, 싸리버섯류
 - 끈적 끈적한 유즙액이 나오거나 버섯즙액에 은수저를 담그면 쉽게 변하는 버섯.....끈적버섯류, 무당버섯류, 젖버섯류
 - 곤충이 먹은 흔적이 없는 버섯.....일반적인 경우
 -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쓰거나 맵고 자극성이 있는 버섯.....일반적인 경우
 - 음습지에서 발생하는 버섯류가 일반적으로 양지성 버섯류보다 독버섯류가 많다.